



낙농정책 연구소 낙농소식

미국의 낙농자조금제도

낙농자조금은 어떤 역할을 하나?

미국의 낙농가는 자신이 생산하는 원유 100파운드(약 45kg)당 15센트를, 유제품수입업자는 원유환산으로 수입 유제품 100파운드당 7.5센트의 낙농자조금을 각각 납부한다. 이는 2014년 8월 15일 현재 미국의 낙농가가 수취하는 평균유대(24.37달러/100파운드)의 0.62%와 0.3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DMI는 이렇게 거출된 자조금을 재원으로 미국 농무성의 감독 하에 우유소비홍보, 미국낙농, 유제품 및 낙농산업에 대한 국민적 호감유지를 위해 미국 전역 및 지역별 홍보조직과 함께 노력한다.

DMI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유·유제품을 이용하여 식품 및 음료분야의 판매확대 및 이미지제고를 꾀하는 기업 및 조직에 대해 전략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DMI는 우유·유제품성분을 함유한 식품의 판매확대를 원하는 낙농 및 식품산업 지도자들과 함께 기업 및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DMI는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제품·영양연구, 지속가능성, 미디어, 소비자 및 시장연구, 메뉴개발, 제품개발, 마케팅, 홍보 및 수출 분야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직원을 파견한다.

낙농가에 의해 시작된 낙농자조금은 1981년에 유지방 환산으로 연간 1인당 243kg이던 우유소비를 현재 274kg까지 끌어 올림으로써 유제품의 판매 및 수요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DMI의 역사

| 1915 |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들의 낙농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낙농가와 유업체가 공동으로 「낙농회의(National Dairy Council: NDC)」를 설립하였다. 오늘날 NDC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영양관련 정보를 학교, 건강관련 전문가, 미디어 및 지도자들에게 제공한다.

| 1940 |

낙농가는 광고홍보를 통한 유제품 소비확대를 위해 미국낙농연합(American Dairy Association: ADA)을 설립하였다. ADA는 미국산 유제품 및 미국산 유제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진짜 미국산”이라는 봉인(Seal)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1970 |

미국낙농산업연합(United Dairy Industry Association: UDIA)은 낙농회의(National Dairy Council: NDC)와 미국낙농연합(American Dairy Association: ADA)을 통합

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원에 가입한 주(州) 및 지역조직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정유입을 전국적인 프로그램운영에 활용한다.

| 1983 |

낙농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 의회는 「낙농 및 담배 조정법: The Dairy and Tobacco Adjustment Act ("The Act")」을 시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우유홍보 및 연구위원회(National Dairy Promotion and Research Board: NDB)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미농무성 명령(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rder ("The Order"))」이 발동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국 규모의 낙농자조금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명시하였다. 1년 뒤 농무장관은 최초로 「우유소비홍보 및 연구위원회(National Dairy Promotion and Research Board)」를 승인함으로써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 1993 |

농무장관의 요구에 의해 시행된 투표결과 미국 낙농가의 71%가 낙농자조금의 계속유지에 찬성을 나타냈다.

| 1995 |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홍보활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NDB 및 UDIA 회원들은 미국 낙농가를 위해 미국산 우

유·유제품의 수요확대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직으로 DMI(Dairy Management, Inc.)를 창설하였다.

이에 DMI는 유업체, 수출업자, 낙농가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국제시장에 있어서 미국낙농산업의 위상제고를 위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유제품수출회의(U.S. Dairy Export Council: USDEC)를 설립하였으며, 낙농자조금 및 회비에 의해 운영된다.

자조금제도가 합헌이라는 미연방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에 이어 필라델피아의 제3차 상고심 법원도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낙농자조금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 2011 |

이에 수입유제품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미 의회는 「낙농 및 담배 조정법: The Dairy and Tobacco Adjustment Act ("The Act")」을, 미국농무성은 「농무성명령(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rder ("The Order"))」을 각각 개정했다. 이 제도에 의해 수입유제품에 대해 원유환산으로 45kg당 7.5센트의 과세를 함과 아울러 두 수입업자를 우유홍보 및 연구위원회(National Dairy Promotion and Research Board: NDB)에 가입시켰다.

DMI DAIRY MANAGEMENT INC.™

DMI란?

DMI는 미국의 우유·유제품의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약 49,000호에 달하는 낙농가 및 유제품 수입업자로부터 거출한 자조금에 의해 운영된다. DMI 및 DMI와 관련된 조직체는 연구, 교육, 기술개혁 등을 통해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수요확대 및 미국산 유제품, 낙농가 그리고 낙농산업에 대한 신뢰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DMI는 낙농회의(National Dairy Council)와 미국낙농연합(American Dairy Association)을 운영한다. 아울러 미국유제품수출회의(U.S. Dairy Export Council), 낙농기술혁신센터(Innovation Center for U.S. Dairy) 및 낙농연구소(Dairy Research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또한 DMI는 우유소비홍보를 위해 미국 전역 및 지역별 홍보조직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EU의 쿼터제에 따른 유제품시장의 전망과 과제

EU 본부는 EU의 유제품시장 상황과 2012년에 발표된 「Milk Package」의 역할에 대한 논평을 냈다. 그 가운데 금후 EU의 쿼터제 이후 EU의 유제품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 및 「Milk Package」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2015년에 종료되는 EU 쿼터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U 위원회의 농업분야 위원인 Dacian Cioloș씨는, “EU 위원회는 2015년의 쿼터제폐지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2010년 이후 낙농분야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최근 세계 유제품시장은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의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2012년 EU가 채택한 「Milk Package」는 낙농산업의 공급망에 있어서 낙농가의 위치를 보다 확고히 함과 아울러 2009년에 겪은 유제품시장의 혼란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낙농산업을 보다 시장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EU 회원국들은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수 있으며, 낙농가는 생산자단체를 통해 원유가격을 포함한 계약조건에 대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또한 EU는 낙농산업의 공급망(supply chain)과 관련된 협상에 참여하는 대표에게 협상권한을 부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토록 인정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 회원국에게 ‘지리적 표시제(PDO)’ 및 ‘원산지표시제’에 의한 치즈공급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 금번 논평을 통해 EU 위원회는 현재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원유거래와 관련한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는 회원국은 12개국(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이며, 일부 회원국(벨기에, 영국)에 있어서는 생산자와 유업체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원유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산자조직을 인정하는 국가차원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6개 회원국(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총 228개의 생산자조직이 정부의 정식승인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 외에 4개 회원국(체코,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는 생산자조직이 전체공급량의 4~33%에 달하는 원유공급을 위한 단체협약을 수행하였으며, 2개 회원국(프랑스, 이탈리아)에 있어서는 일부 ‘원산지표시제(PDO)’ 및 ‘지리적표시제(PGI)’에 의한 치즈공급을 규제하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EU 위원회는 아직 「Milk Package」의 효력이 낙농분야에 나타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특히 조건불리지역에 있어서 그 같은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생산자조직의 창설, 단체협약체제의 구성 등 「Milk Package」를 구체화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을 요하며, 특히 생산자 측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 EU 위원회는 쿼터제 이후 유제품시장의 투명성확보 및 시장분석을 위한 대책으로 최근 「유제품시장조사위원회(MMO)」를 발족시켰다. MMO는 유럽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금번 보고서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성장이 기대되는 세계 유제품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쿼터제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극단적인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 및 낙농이 EU의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EU 차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의 의구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EU 위원회가 쿼터제와 관련한 이 같은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